

참여마당-상대평가/절대평가

상대평가, 학생 성취도 높이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



중국어학과 홍지영
bc0521@knu.ac.kr

‘공정’이라는 가치를 빛나게 하는 상대평가는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전국 대학은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자 온라인 학습으로만 성적을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게 대학가에 절대평가, 성적 평가 완화 등의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다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대학은 기존 성적 평가 방식이었던 상대평가 방식을 다시 채택했다.

대학이 상대평가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학생은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대학 평가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여부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이 상대평가를 고집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2014년도까지는 대학 평가 항목에 ‘성적 분포의 적절성’이 포함돼 있었으나, 현재 이 항목은 삭제된 상태다.

그렇다면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 방식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평가 방식이 학생 성취도를 향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2013)’에 따르면 “상대평가 방식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업수행성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전해진다. 어디까지나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에서 학습에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또 상대평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빛나게 한다. 절대평가는 교수님마다 평가 기준이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티임’을 보면 이에 대한 불만을 알아볼 수 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기본 과제들만 해내면 무난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일명 ‘꿀강의’가 있는가 하면, 상대평가 때보다도 좋은 성적을 받기 더 힘들다는 강의 또한 있었다. 이러한 편차는 상대평가에서도 존재했지만, 절대평가 이후 그 편차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교수가 제시한 학습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높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러한 줄세우기식 평가 체제에서 청소년기를 살아왔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그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이 방식에 동의해왔다. 그렇기에 대학의 상대평가에 갑작스럽게 불공정함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절대평가는 이익이 없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절대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취 수준, 목표 도달 정도를 알아보는 제도이다. 입시라는 제도를 통해 능력을 겸증받은 학생들이 모인 대학에서 채택할 만한 제도이다. 그렇기에 절대평가 체제에 학생들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본인 역량 아래에 학습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모인 ‘대학’이라는 집단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같은 성적을 주는 방식이 과연 성적 평가 방식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것에는 의문이 든다. 이는 자칫하면 학점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성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헤럴드경제 김희량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4개교 재학생 중 83.4% 가 B 학점 이상을 취득했다고 전해진다. 종합해 보았을 때, 대학의 성적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학생들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



(사진=언스플래쉬)

대학 시험의 척도는 수업 이해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현 가능해



한국어학과 권나경
triunfo1to1@knu.ac.kr

“대학은 학점을 서열을 나누기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 곳, 절대평가를 통해 과도한 학점 경쟁을 줄이고 협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B학점 이상 취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하거나, 기말고사만 실시했으며 최종 성적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A 학점 이상 50% 이내, B학점 이상 50% 이내 등으로 상한선을 완화해 주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절대평가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집단의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에서 주로 채택하는 편이다.

한 집단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두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즉 다른 학생과의 경쟁 없이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다른 학생도 그것을 충족 시켰다면 함께 기준을 통과하는 평가다. 절대평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하고 협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차는 누적된 교육 실패에서 오기 때문에 조력에 의해 개인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는 학생이 정해진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용이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가자료

를 통해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이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하며 생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학생들 사이 반응은 엇갈린다. 높은 학점을 얻기가 수월해졌지만, 취업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비대면 수업의 접근성이 학생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절대평가는 개인 사이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개인 간의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반영하며, 경쟁을 통한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또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상대평가의 치명적인 단점은 개인의 점수에 따라 서열이 나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쟁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져 집단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열등감을 부추기고 정서적 불안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절대평가와 달리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이 목표에 정확히 도달했는지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목적이나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정된 인원에서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험인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반면에 주로 경쟁이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지 가려내는 시험에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서 치르는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가 더 나은 방식이다. 상대평가는 집단 내 개인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과도한 학점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서열을 나누기보다 학생이 수업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에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를 통해 과도한 학점 경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언스플래쉬)